

## 엄마의 교복 색깔

윤 소 현 · 서울 동자초등학교 2-2

**작**년 추석에 할머니 댁에 놀러 갔을 때의 일이다.

모두들 둘러앉아서 담배를 피우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는데 할아버지께서는 과일만 드시고 계셨다.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께 여쭙어 보았다.

“할아버지,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모두 담배를 피우시는데 할아버지께서는 왜 담배를 피우지 않으세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엄마 교복 때문에 담배를 끊었다.” 하셨다.

나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 하고 있는데 옆에 계시던 할머니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엄마가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해서 그랬지!”

나는 더 어리둥절했다.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엄마가 학교를 안 가려고 했어요?” 하고 다시 여쭙어 보았다.

할아버지께서는 옆에 계시다가 ‘허 참’ 하시며 밖으로 나가셨다. 잠시 후 할머니께서는 나에게 할아버지께서 담배를 피우셨던 이야기와 끊게



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다.

“너희 엄마가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할아버지께서는 담배를 아주 많이 피우셨단다. 그래서 온 집안이 담배 연기로 가득했었지. 모든 벽이며 장롱 안의 이불, 옷... 모두 냄새로 찌들고 색이 누렇게 되어서 무엇 하나도 깨끗한 것이 없었고 빨아도 지워지지 않았단다.”

하시고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렇게까지 담배 연기가 속속들이 배어서 지워지지 않을 줄은 몰랐다고 하셨다.

“할머니, 그런데 왜 엄마가 학교를 안 가려고 했느냐구요?” 하고 다시 크게 여쭙었다.

“그건 말이다, 봄이 되어서 교복을 꺼내 보았는데 글썽 할아버지께서 계속해서 피운

담배 연기가 바로 엄마의 흰색 교복을 다른 색으로 물들여 놓았지 않았겠니. 그 당시만 해도 집안이 넉넉하질 않아서 다시 사줄 수가 없었던단다. 그래서 엄마는 창피하다고 울면서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했지. 할아버지께서는 미안한지 밖으로 나가시면서 하신

다는 말씀이 『담배를 끊어야지』라고 하셨지. 그러더니 정말로 그 이후로는 담배를 안 피우셨어. 그리고 보면 너희 엄마가 할아버지의 건강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준 게지.”

하시며 입가에 미소를 지으셨다.

나는 담배연기라는 것이 우리 몸 속에서도 한번 들어오면 없어지지 않고 큰 해를 입히는 아주 무섭고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아빠가 담배를 피우시지 않는 것 또한 감사하게 생각이 되어 아빠에게로 가서 불에 뽀뽀를 하고 외락껴안았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는 금연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㉞

## 아빠 새까매져요

현 준 수 · 대구 와룡초등학교 3-6

TV를 보시던 아버지께서 슬그머니 일어나시더니 한 손에는 담배를 한 개비 드시고, 다른 한 손에는 라이터를 들고 베란다 쪽으로 나가시려 하자마자, 장난감을 갖고 놀던 동생은 쭈르륵 따라 나가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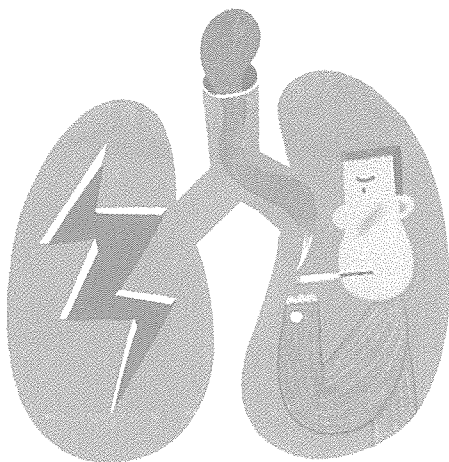
“아빠, 아빠 담배 피우지 마세요. 담배 피우면 시꺼매져요.” 하면서 아버지 다리를 붙잡고 담배를 못 피우게 말린다.

아버지께서는 동생의 만류에 그렇게 좋아하시는 담배도 못 피우시고 참아 보신다. 한참 후 도저히 못 참으시겠는지 주머니에 슬그머니 손을 넣고는 밖으로 나가신다.

그때 어머니께서, “준수 아빠, 민수가 저렇게 카는 데도 또 담배 피우려 가요? 당신 때문에 우리까지 건강이 나빠진다고요.”

따다닥 늘어놓는 어머니의 잔소리를 뒤로 한 채 아버지께서는 슬며시 밖으로 나가신다. 잠시 후 노리끼리하고 매캐한 냄새를 풍기면서 들어오시는 아버지께 나와 동생은 우리 집 ‘금연노래’를 부른다.

“담배를 피우면 절대로 안돼. 담배를 피우면 새까매져요. 그래도 담배를 피우면 내가



뺏을 거야.”

아버지께서는 머리를 굽적거리시면서 겸연쩍게 씩 웃어버리신다.

아버지께서도 담배는 몸에 해롭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신다. 얼마 전에 TV에서 ‘일요스페셜’로 보내 준 ‘금연프로’도 3주 동안 한번도 빼먹지 않고 보시면서, “이번 기회에 한번 끊어봐야 되겠는데, 집에서도 잔소리 듣고 회사에서도 수모 받고 더러워져도 끊어버려야겠다.” 라고 하셨다.

정말 끊어버리려고 결심을 하셨는지, 없으면 안 피운다고 담배를 며칠 동안 사지도 않으셨다. 그리고 박하사탕도 잡수시고 우리들이 먹던 과자, 껌등을 드시면서 며칠동안은 담배를 피우지 않으셨지만, 5일

도 못 참으시고 다시 또 담배를 피우시게 되었다.

도대체 왜 담배를 끊을 수가 없는 것일까? 우리들이 초콜릿은 이빨이 썩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먹고 싶은 것처럼, 아버지께서도 건강에 나빠진다는 것을 아시면 서도 끊지를 못 하신다.

이렇게 계속 피우다가 담배 연기가 우리 아버지 몸 속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폐가 새까매지면 어떻게 하나 싶어 걱정이 된다. 그리고 내 동생은 기관지천식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베란다에 나가서 피우시지만 창문 틈 사이로 파고 들어오는 연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담배를 피우시자 마자 ‘쿨룩쿨룩’ 기침을 한다.

아버지의 건강과 내 동생과 어머니와 나의 건강을 위해서도 아버지께서는 담배를 끊으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속상한 일이 없도록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동생과 사이좋게 놀고 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면, 아버지께서 기분이 좋아서 담배를 피우실 일이 없을 것 같다.

“아버지, 담배 피우시면 꺼매져요.”